

□한총련 탈퇴강요의 부당함을 짚어본다

정권의 유인작전에 말려버린 학생운동

박정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교육선전국)

대선자금의혹, 김현철 구속 등 수세에 몰린정부

마녀사냥식 대학사찰로 국면 전환 수단삼아

한국사회에서 이적(利敵)이란 수식을 앞에 붙이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이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건 천형을 면치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적은 복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국시는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다. 국회에서 통일국시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이례적으로 회기중에 구속이 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맥을 못추고 무너진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수사권과 여론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막강한 권력집단이 자신의 부도덕을 감추고 정치생명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활용되곤했으며 힘이 없는 반대편은 소리소문없이 이적자가 되고 말았다. 해방후 진보정당의 조봉암선생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 아당의 총재 또한 그런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민주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족자주화운동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민주화나 통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화나 통일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철저한 탄압을 받아야만 했다. 탄압의 명분은 언제나 좌경, 용공, 이적이었다.

현재 한총련에게 가해지는 탄압도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작동하고 있다. 경찰은 7월 31일이란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모두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시키겠다는 방침을 추진중이다. 벌써 수많은 대학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형사들이 대학에 상주하거나 학생회에 경찰이 권총을 들고 난입해 학생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동인은 한총련 출범식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몇가지 사건이다. 이들의 죽음은 분명 억울한 죽음이다. 또한 한총련의 책임 또한 절대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제도언론에서 주장하는 한총련의 폭력적격노선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 한총련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들을 살인할 목적으로 두들겨팼다는 식의 주장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고서야 정권을 위기에서 구해줄기에 충분한 '행동'을 스스로 자정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철저한 준비나 한 듯이 사건이후 모든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한총련을 공격하는 기동성과 치밀함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권측에서는 대선자금의혹, 김현철 구속등으로 국도의 수세에 몰리자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로 정세의 반전을 노렸을 것이고, 반대로 학생운동진영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원성을 적극화시켜 정권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오



▲5기 한총련 출범식 당시 군계 단해버린 한양대 정문. 6월 한달간 총 4백13명이 구속되었다. (사진: 월간 말지)

랜만에 박수를 받으며 시위를 전개하던 학생운동은 정권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이겼고 한총련이 졌으며, 패배의 맛으로 정권측에서는 대선자금의 생점 회석화, 정권의 반전을 얻어냈다.

급기야 정권과 언론은 한총련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분리통치하기 시작했고, 국민과 재야를 분할지배하기 시작했다.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정권의 발상은 또다른 불행을 예측하게 한

다. 노동조합이 법에 명시된 합법조직이듯 학생회도 법에 명시된 합법조직이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조직이다. 만약에 검찰이 학생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 모두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 더불어 법을 수호하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이 법에 반해 행사되는 일을 저지르는 셈이다.

이적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대로 적을 이롭게

해서 소위 말하는 남침의 오판을 내리게 한 가장 큰 장본인은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들이다. 이들이 일으킨 사회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이 말하는 적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았겠는가!

냉전시대의 유물인 흑백논리로 반공이나 아니냐, 친북이나 아니냐는 신메카시즘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정적 제거에만 매달리는 행위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다.

그렇다. 학생회 측의 계획이 착오 없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결정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게다가 방학중이라서 학생들의 뜻을 모으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한총련이 일반 시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많다. 시민들과의 연대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는가

총학생회 측에서는 민중들 속에서 민중들을 만나 가는 과정으로 한총련에 대한 신뢰를 지역에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22일부터는 새벽정소를 28일부터 8월8일까지는 학교 앞 상가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뜻을 모으고 매주 금요일엔 지역 영화제를 상영할 계획이다. (최현일기자)

세시봉

왕권언론수설(?)

김동욱 사회부장

'신의 이름으로(The name of God)'

중세 로마에선 신의 위대함과 권위를 알세워 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면한다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다. 왕의 존재보다 더욱 절대적인 것이 바로 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왕권신수설'이라 하여 그러한 신의 이름을 빌어 일방적인 왕만들기가 자행되었는데 이 때의 킹메이커는 기독교인 왕족들과 교주들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판단도 허락치 않았던 킹메이커들은 수십세기를 거쳐 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으로 다시금 한국에서 왕만들기를 자행하는 것 같다.

지난 21일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이회창씨가 당내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되었다. 그 다음 날 각 일간지들은 1면 머릿기사로는 물론이며 총 5면 가까이 이회창씨 관련 기사들을 보도했다. 마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 처럼 언론들은 일제히 큰 비중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정치왕보를 정리하는가 하면 가족사진을 큼직하게 실어 '인간 이회창'을 표현하기도 하고 '대쪽이미지' '법대로'라는 그의 정치신념을 기사의 큰 제목으로 삼았다.

집권여당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는 지난 우리 정치사를 통해 보더라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국민투표를 무시한채 신문의 많은 지면을 채울 수 있는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씨의 대법원 판사시절 부터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까지 그 교조고장하고 대쪽같은 성격을 칭송하며 정치개혁의 적격자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그 대쪽같은 인물과 반대로 지난해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참여와 '증거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해야 한다'라 밝힌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당 대표로 있으면서 '수사불가' 입장을 대변한 그를 보며 순수한 대쪽은 커녕 아마도 바람따라 흐느껴 거리는 대나무 줄거리가 아닌 듯 싶다.

이러한 이씨를 두고 보이지 않는 킹메이커들은 신의 이름이 아닌 '언론의 이름'으로 그를 왕을 만들려 한다. 몇 달 전의 대선주자 TV 토론회부터 계속되는 킹메이킹은 아직 언론의 힘이 지배적인 현사회에 있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대중씨 지지도가 점차 높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언론의 움직임이 어떠하리라는 짐작할만 하겠다.



사회당신

우리학교총학, 한총련 임시대의원회의 재소집 강력히 요구

한총련은 지난 18일 한양대학교에서 한총련 사수 결의 하기 위해 한총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전국연합, 민주노동 등 30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은 23일 8.15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한 한총련 임시대의원회의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한총련,법민련등을 배제한 채 시민, 해외교포 등이 참가하는 축제성 집회로 8.15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한총련 주도 통일 운동 반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오후 한총련의 상부기구인 조국통일법민족 학생운동연합(법청학련)의 해체를 요구하고, 한총련이 8월로 예정한 법민족대회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실질적인 노선 수정이 없으면 8월말 전 체 학생투표 등을 통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8.15대회 한총련 배제 시민 행사 치른다

지난해의 연세대 사태와 올해 한총련 출범식행사로 혼령을 치렀던 재야단체들이 올 8.15 대회를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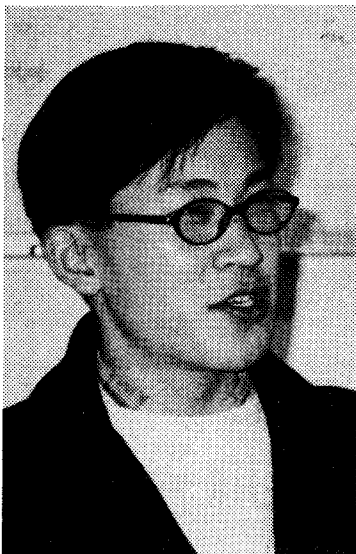
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벤트성 대중 집회로 치르기로 했다.

전국연합, 민주노동 등 30개 종교, 시민, 사회단체들은 23일 8.15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한 한총련 임시대의원회의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한총련,법민련등을 배제한 채 시민, 해외교포 등이 참가하는 축제성 집회로 8.15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한총련 주도 통일 운동 반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오후 한총련의 상부기구인 조국통일법민족 학생운동연합(법청학련)의 해체를 요구하고, 한총련이 8월로 예정한 법민족대회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한총련의 실질적인 노선 수정이 없으면 8월말 전 체 학생투표 등을 통해 한총련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정운(생물 4)군을 만나

“절대로 한총련 탈퇴하지 않겠다”

정부에서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7월말까지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한총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어디로 향할지 알아보고자 박정운(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군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지난 18일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며 무기한 연거되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학생운동 모색과 한총련 거듭나기를 논의 하기위해 한양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총련 임시대의원회의가 한양대주변 원전 분쇄 등의 정부측의 탄압과 대의원들의 준비부족 및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수배상태였다가 어려움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한총련의 투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높다. 한총련 탈퇴를 고려하는가

목적은 정당했다. 하지만 방식상에 파생된 문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결코 탈퇴는 있을수 없으며 우리는 한총련 중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7월말까지로 정해져있는 한총련 탈퇴 기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합법적인 학생회 구성권리에도 위배되는 검찰의 임의적인 결정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학생들에게서 신 발상을 통해 한총련의 입장과 그 존립의 필요성을 거론하겠으며 아울러 언론사에서 행하고 있는 왜곡 보도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권의 힘을 막는다는 것은 힘이든다. 재야단체나 뜻있는 선배들의 도움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